

김명순 시에 나타난 ‘말하는 주체’의 심리적 갈등양상 연구

배 옥 주 (부경대)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내면심리 변화의 문학적 형상화 |
| II. 코라 세미오틱(Khoa semiotique)
의 ‘말하는 주체’와 심리주의 방
어기제 | 1. 자아 모색, 자아 초월의 시
2. 자아 구원, 자아 극복의지의 시 |
| III. 심리묘사 중심의 전략적 사유 | V. 결론 |
| 1. 자아 고립, 자아 부정의 시 | |
| 2. 식민화된 정체성 - 자기 탈피의 시 | |

국문초록

김명순 시를 연구한 다수 논의에서 김명순 시에 나타난 ‘말하는 주체’가 ‘시적 화자’이며 ‘시인’ 자신과 동일시되는 자전적 글쓰기라는 연구결과를 살펴 보았다. 작품 안의 서술자가 화자이고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시인이며 이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시적 연술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시인이 특정가면을 내세워 작품 안에서 발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주체’는 시적 발화를 하는 역할의 화자 목소리를 거쳐 시인 자신의 세계관을 표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김명순의 자전적 글쓰기에 나타난 ‘말하는 주체’의 심리적 갈등양상을 고찰하여 김명순 시에 나타난 시적 세계관의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김명순은 최초의 여성시인으로 근대문학의 선구자적 위치에서 자기애와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인식한 신여성이었다. 김명순이 맞닥뜨린 꺾혔던 당대 시대적, 역사적 상황은 그녀를 ‘글쓰기’라는 창작의 산실로 밀어 넣은 긍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김명순은 자신을 검열하였던 근대지식인 남성들의 폭력적 횡포와, 출생신분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문학활동을 전개해나갔다. 김명순 시에 나타난 ‘말하는 주체’의 심리적 갈등양상을 살펴보면, 초기시에는 내향 굴절을 지향하는 비탄적 독백조의 경향을 보이지만, 중기시 이후로 갈수록 ‘말하는 주체’의 목소리를 빌어 외적 세계에 대한 분노의 갈등양상을 공격적으로 표출한다. 그것은 시의 기법적 미숙함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그녀의 전략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명순이 자신의 출신성분이나 데이트 강간사건처럼 치부가 될 수도 있는 현실의 갈등을, 있는 그대로 지속에 녹여내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문학작품 속에 작가를 환기시키는 체험의 공통요소를 반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약의적인 외부시선과 담론에 항변의 신호를 멈추지 않았다. 김명순은 피해갈 수 없었던 운명적 체험에 대한 갈등을 창작의지로 표출하며 꺾힌 상황을 극복하려 한 것으로 짐작된다.

김명순이 자전적 글쓰기의 ‘말하는 주체’를 통해 보여주는 시적 세계관의 특징은 자아 고립, 자아 부정, 식민화된 정체성의 갈등양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말하는 주체’가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을 향해 자신의 체험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당당하게 나서겠다는 자기방어기제의 의도적인 전략이다. 그 전략적 사유는 자신이 거부했던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후회가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모성회귀 본능으로 돌아가면서 자아 구원의 글쓰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김명순 시에 나타난 ‘말하는 주체’의 꺾이지 않는 자아 극복의지는 그녀가 역사적, 시대적 담론의 틈에서 빠져나와 실존적 삶의 생존자로 거듭나는 동기가 된다.

주제어: 김명순, 자전적 글쓰기, 말하는 주체, 심리적 갈등양상, 방

I. 서론

김명순은 한국근대 최초의 여성작가로 문단<1917년 「의심의 소녀」(疑心の少女) 『청춘』 현상공모당선>에 등단했다. 김명순은 근대 최초의 현상 문예에 당선된 1세대 여성작가로서 한국근대문학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녀는 시와 소설, 희곡 등 140여편(170여편-개고본 포함)의 방대한 작품을 남겼지만 비교적 개인적 측면에 한정된 활동을 했다. 이로 인해 김명순 연구는 소홀했으나 2010년 이후부터 심층적인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김명순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20세기 초의 여성적 글쓰기 담론, 신여성 문학, 자전적 글쓰기, 사소설적 고백체, 주제 연구, 어조, 상징주의 연구, 기독교 사상 등의 연구가 주로 논의되었다.¹⁾ 2010년 이후 디아스포라,

-
- 1) 김정자, 「김명순 문학의 여성학적 접근」, 『여성학연구』 제2권1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1990.
박경혜, 「빼앗긴 집을 찾아 헤매는 영혼의 언어-김명순의 시」, 『문학과 의식』 26, 문학과 의식사, 1994.
이덕화, 「신여성 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김명순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이희경, 「여성문학의 흐름에서 본 1920년대 여성 시」, 『한국언어문학』 제4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2.
안혜련, 「1920년대 <여성적 글쓰기>의 모색」, 『한국언어문학』 제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신지연, 「1920년대 여성담론과 김명순의 글쓰기」, 『어문논집』 48, 어문학회, 2003.
남민우, 「여성시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1920년대 김명순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교육학』 제1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문학행위, 하우스프트만의 문화번역연구, 기혼자의 연애 고찰, 타자화와 타자성²⁾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자전적 글쓰기 속에 재현된 삶은 실제 삶과 다름을 전제하면서 문학에서는 허구화된 서사적 자아의 재현을 통해서 실제의 경험적 자아가 처한 세상과의 단절된 현실을 극복하기를 꾀한다고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³⁾ 하지만 다수의 논자들은

김미영, 「1920년대 신여성성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나혜석, 김일엽, 김명순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맹문재, 「김명순 시의 주제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53집, 한국언어문학회, 2004.

김영옥, 「1920년대 여성시인 연구-김일엽, 김명순, 나혜석의 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20, 우리문학회, 2006.

이민영, 「김명순 희곡의 상징주의적 경향 연구」, 『어문학』 제103집, 한국어문학회, 2009.

방정민, 「김명순 시의 신여성상 연구-엘렌 케이 사상의 수용적 측면과 능가한 측면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2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김경애, 「작가 김명순의 삶과 기독교 신앙」, 『여성과 역사』 제17집, 한국여성사학회, 2012.

이태숙, 「고백체 문학과 여성주체-김명순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12.

송명희, 「신여성의 사랑과 자유이혼-김명순의 나는 사랑한다」, 『국어문학』 56, 국어문학회, 2014.

2) 남은혜, 「김명순 문학행위에 대한 연구-텍스트 확정과 대항담론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 3,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서정자, 「축출, 배제의 고리와 대항서사-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본 김명순의 문학」, 『세계한국어문학』 4,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권선영, 「한일근대여성문학에 나타난 기혼자의 ‘연애’고찰-김명순의 『외로운 사람들』과 다무라 도시코의 『포락의 형벌』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56, 대한일어일문학회, 2012.

최윤정, 「김명순 문학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송명희, 앞의 논문.

신혜수, 「김명순의 하우스프트만 문화번역 연구-『돌아다볼 때』와 『외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69, 국제어문학회, 2016.

3) 문미령, 『근대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의 양상 및 의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순의 문학이 고백체 문학이라거나 사소설적인 자전적 글쓰기라고 주장한다.⁴⁾

당시는 국권상실의 상황이었으며 봉건적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기였다. 이 때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신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남존여비와 가부장제 억압의 봉건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며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중 신여성 문학담론의 교육과 자유연애에 관한 내용은 『신여자』와 『여자계』를 통해 드러난다.⁵⁾ 신여성의 중심에 섰던 김명순은 당대문학의 남성 작가들에 의해 공격을 당한다. 김기진⁶⁾, 김동인⁷⁾, 전영택⁸⁾, 염상섭⁹⁾ 등은 김명순의 작품에 혹평을 가하고, 그녀의 삶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조롱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김명순의 소설이 사담소설이라거나 김명순의 자전적 글쓰기가 히스테리칼로 발달된 심정일 뿐이라며 가치평하한다. 김명순은 여기에 대응하여 남성문인들의 조롱에 반박하는 글을 썼다. 그러나 《신여성》 송년호 목차에서 제목만 찾아볼 수 있을 뿐 정작 글은 실리지 않고 유아무

문, 2005, 초록.

남은혜, 앞의 논문, 205~206면.

4) 김정자, 앞의 논문.

박경혜, 「빼앗긴 집을 찾아 해매는 영혼의 언어-김명순의 시」, 앞의 논문, 1994.

_____, 「어조의 분열: 유편과 탈주의 욕망 사이」, 『여성문학연구』 2호, 한국여성문학회, 1999.

최혜실, 「신여성의 고백과 근대성」,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회, 1999.

안혜련, 앞의 논문.

신지연, 앞의 논문.

맹문재, 앞의 논문.

김영옥, 앞의 논문.

방정민, 앞의 논문.

이태숙, 앞의 논문.

최윤정, 앞의 논문.

5) 이덕화, 앞의 논문, 22면.

6) 김기진,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신여성》, 1924, 47면.

7) 김동인, 『김연실전』, 문장, 1939, 3면.

8) 전영택, 「김탄실과 그 아들」, 『현대문학』 4호 1955, 4.

_____, 「내가 아는 김명순」, 『현대문학』 1963, 2, 251~254면.

9) 염상섭, 「추도」, 『신천지』, 1954, 1면.

야 되어 버렸다.¹⁰⁾ 이를 볼 때 당대의 전반적 풍토와 김명순이 처한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김명순은 자신이 동경에서 임모월과 동거했다는 사생활을 바탕으로 자신을 탕녀로 규정짓는 공론화된 세간의 시선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¹¹⁾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한 김명순에게 ‘글쓰기’는 기생의 서녀라는 비천한 출생신분의 내적 담론과, 탕녀로 규정짓는 외적 담론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신여성의 갈등과 좌절에 시달린 김명순을 적극적인 문학활동으로 이끈 계기로 작용했으며, 김명순 문학에 드러난 ‘말하는 주체’의 내면심리를 작가의 개성적인 색깔로 풀어내는 데 일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명순은 사회적 현실억압 상황의 중심에서 실제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자서전적 문학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명순 시적 세계관의 특징은 실제체험에서 환기되는 특정한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 전체 시에 깔린 주조음은 직접적인 체험에서 비롯되는 설움과 비통함 그리고 한恨의 정서다.¹²⁾ 이를 중심으로 초기시는 내향적 굴절을 지향하는 직설적인 비탄과 고독한 자화상을 드러낸다. 이런 시 경향은 중기시 이후 복합적 양상을 띠며 발전해 나간다. 김명순은 비탄적 독백조의 초기시 경향¹³⁾과는 다르게 중기시 이후로 갈수록 외적 세계에 대한 분노의 갈등양상을 공격적으로 표출한다. 그것은 시의 기법적 미숙함¹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말하는 주체’의 체험적 목소리로 자아를 초월하겠다는 그녀의 전략적 사유로 볼 수 있다.

시적 발화를 수행하는 행위자는 화자가 되고, 화자라는 가면을 쓴 실제 발화자는 시인이다. 작품 안의 서술자가 화자이고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시인이며 이 둘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시적 연술이 만들어진다. 시인이 특정가면을 내세워 작품 안에서 발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주체’는

10) 신지연, 앞의 논문, 324면.

11) 신지연, 위의 논문, 329면.

12) 박경혜, 「빼앗긴 집을 찾아 헤매는 영혼의 언어-김명순의 시」, 앞의 논문, 198면.

13) 『조로의 화몽』에서 1925년까지

14) 박경혜, 「어조의 분열 : 유편과 탈주의 욕망 사이-김명순론」, 앞의 논문, 90면.

시적 발화를 하는 역할의 화자 목소리를 거쳐 시인 자신의 세계관을 표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현상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말하는 주체’는 언어라는 체계의 여러 요소들이 매번 독자적인 표현행위를 하려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경합을 벌인다.¹⁶⁾ 이는 ‘말하는 주체’를 통해 언어라는 요소들이 현실 논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녀가 처한 당대 역사적, 사회적 담론을 고려해볼 때, 김명순 시에 나타난 ‘말하는 주체’는 꺾어진 실제 삶을 기반으로 하는 갈등양상의 자전적 글쓰기를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는 곧 특정가면을 내세워 작품 안에서 발화를 수행하는 시인이 실제 겪었던 사건 속에 속속 등장하거나 자신의 내적 고백을 정당화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증명된다. 특히 중기시¹⁷⁾ 이후의 특징은 자아 고립, 자아 부정, 식민화된 정체성의 갈등양상을 드러낸다. 김명순이 신여성작가로 등장한 1920년대는 유럽의 새로운 사조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국권상실 상태에서 봉건적 질서를 앞세운 신지식인 남성작가들의 조롱에 의해 정체성을 억압받던 시기였다. 김명순은 시 속에 작가를 환기시키는 체험의 공통요소를 반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약의적인 외부시선에 항변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꺾어진 상황을 극복하려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김명순 시에 나타난 ‘말하는 주체’가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을 향해 자신의 체험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당당하게 나서겠다는 자기방어기제의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그 전략적 사유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후회가 모성회귀 본능을 일으키면서 한 걸음 나아가 ‘말하는 주체’의 꺾이지 않는 자아 극복의지로 표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명순은 자전적 시 쓰기를 통해 ‘말하는 주체’가 되는 ‘시인’의 자아 구원을 시 속에 녹여낸 것이다.

본고는 김명순 시에서 ‘말하는 주체’와 ‘시적 화자’와 ‘작가 김명순’이 드러

15)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 23면.

16) 메를로 퐁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107~120면.

17) 『생명의 과실』이 간행된 1925년부터 그 이후

내는 내면심리가 동일시된다고 보고, 시에 나타난 ‘말하는 주체’와 ‘시적 화자’라는 용어를 혼용해 사용할 것이다. 자전적 글쓰기를 하는 김명순의 시에서 ‘말하는 주체’가 되는 ‘시적 화자’는 동일하게 작가의 심리가 이입된 내면을 지향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김명순 시에 나타난 ‘말하는 주체’의 심리적 갈등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심리주의 방어기제와 크리스테바의 코라 세미오틱 공간의 ‘말하는 주체’에 대한 논의를 참조할 것이다. 본고는 심리주의 방어기제와 코라 세미오틱 공간에서의 ‘말하는 주체’에 대한 논의를 개략적으로 살피고 이들 논의에서 추출한 시적 적용원리로 ‘말하는 주체’의 심리적 갈등양상을 탐구하여 김명순 시에 나타나는 시적 세계관의 특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중심텍스트는 김명순 전집¹⁸⁾에 수록된 시가 될 것이다.

II. 코라 세미오틱(Khosemiotique)의 ‘말하는 주체’와 심리주의 방어기제

김명순은 당대 사회, 문화적 흔적이나 사고방식, 사회의 태도 등 내적, 외적 압박에 지배되었으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문화나 권력의 장에서 격리되고 제도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김명순 시를 살펴보면 소극적으로 피하거나 안으로 숨어들지 않고 ‘말하는 주체’를 통해 자신의 체험을 솔직하게 현시하는 전략적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김명순 문학창작은 작가 속에 억압된 내면을 끌어올려 글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억압을 해소하는 방어기제를 마련한다. 결국 김명순 글쓰기는 ‘말하는 주체’가 가진 내면심리의 흔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시속에 자신의 현실문제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행위는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내면의식이 삶의 행위

18) 맹문재, 『김명순 전집-시, 희곡』, 현대문학, 2009.

로 구체화된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실천될 때 과학이나 학문이나 실제적인 삶이 되고 감성적으로 실천될 때 예술적 삶이 된다. 따라서 문학도 당연히 인간의 심리적 표현이 되는 셈이다. 시 속에 드러나는 시어는 시 텍스트 내에서 자신의 기능을 부여받는 상위 텍스트의 구성요소다.¹⁹⁾ 이때 시에서 ‘말하는 주체’는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직접적 시어나, 등장인물들의 담화인 객체적 시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타인의 시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이 시어는 본래의 의미도 동시에 지니는 양가적인 성질을 갖게 된다. 시에서 ‘말하는 주체’는 상징질서 안에 살기 위해 더럽고 비천한 것을 추방해버리지만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출렁이게 되는 것이다.²⁰⁾

크리스테바는 시인의 생애와 체험 그리고 에피소드를 끌어들이며 시의 구절과 표현을 설명하고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한다. 그녀에 따르면 글쓰기 행위에서 ‘말하는 주체’는 언어의 질서 속에서 소통을 피하는 영원한 투쟁을 하고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서 억제된 욕망을 분출하기 위한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다.²¹⁾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주장하는 코라(Khora)²²⁾는 육체 안의 본능들과 심리적 충동들이 흘러 다니는 공간으로 시어 속에서 고동치는 ‘말하는 주체’의 심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²³⁾ 그런데 코라(Khora)에서 언어적인 면만을 수용한 코라 세미오틱(Khora semiotique)은 행동이 예측 불가능한 ‘말하는 주체’를 산출하는 장이면서 ‘말하는 주체’를 부정하는 장이 된다. 그녀는 사회적 영역의 ‘말하는 주체’에서 의미화 되는 실행언어를 ‘시적 언어’라고 부른다. 시적 언어는 상징계가 기호계의 침입을 받는 언어가 되는 것이다.²⁴⁾ 심리주의 비평은 프로이트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지

19) 김인환,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문학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59~62면.

20) 김승희, 「상징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진복의 전략들」, 『여성문학연구』 2호, 여성문학연구학회, 1999, 152면.

21) 김인환, 앞의 책, 93~113면.

22) 김승희, 『이상 시 연구』, 보고서, 1998, 25~29면.

23) 김승희, 앞의 논문, 139면.

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은 심리학에서는 물론 문학 비평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주었다.²⁵⁾ 프로이트의 심리분석을 통해 독자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작품의 열쇠를 탐구할 수 있다.²⁶⁾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방어기제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말하는 주체’에서 의미화 되는 시적 언어는 김명순 시적 세계관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

Ⅲ. 심리묘사 중심의 전략적 사유

철학에서 ‘주체’는 사유하는 실체(substantia)이다. 즉 ‘주체’란 ‘주가 되는 것’이나 ‘복종하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가장 오롯한 의미가 남겨진다. 다시 말해 주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과 무언가를 따르게 하는 힘을 뜻한다. 그렇다면 시에서 ‘말하는 주체’는 시를 만들어 내는 힘, 시를 고안하는 힘, 역사 속에서 시를 고안하고 생성해 내는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에서 ‘말하는 주체’는 오로지 언어의 문제에 결부된 사유의 대상으로 시적 화자가 되며 예술 개별화의 한 방편이 된다. 이는 예술에 특수성을 부여하는 전략적 사유를 고안해내는 힘이다. 바로 이 힘이 삶의 형태도 변형시킨다고 볼 수 있다.²⁷⁾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형성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성숙과 외부적 욕구불만에서 오는 고통, 충동과 반대 충동의 내부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괴로움, 개인적 부적응과 불안 등 심리적 요인으로 보았다.²⁸⁾ 여기서 ‘불안’이

24) 박재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시적 언어와 그 실체」, 『국어문학』 56집, 국어문학회, 2014, 98면.

25) 안나 프로이트, 김건중 역, 『자아와 방어기제』, 열린책들, 2015, 11~12면.

26) 홍문표, 『현대문학비평이론-비평의 이론과 실제』, 창조문학사, 2003, 380~410면.

27) 조재룡, 「말하는 주체, 시적 주체, 주체화」, 『계간 시작』, 2013, 277~304면.

28)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 홍혜경 역,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열린책들,

란 불길한 느낌이나 우려하는 마음 또는 분명치 않은 두려움 등 고통스러운 감정의 체험을 말한다.²⁹⁾ 심리적 방어기제는 이런 상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극복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기기만이나 현실왜곡의 방어기제는 승화, 억압, 투사, 전위, 치환, 합리화, 퇴행, 반동형성, 동일시, 양가감정 등의 심리현상으로 나타난다.³⁰⁾ 무의식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방어기제에는 자기기만과 현실왜곡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크리스테바는 상징계로 대표되는 추론적인 영역과 기호계로 대표되는 심리적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밝혔다. 크리스테바가 연구한 코라 세미오틱(Khora semiotique)공간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말하는 주체’의 행동이 유동적으로 분출한다. ‘말하는 주체’에게 코라 세미오틱(Khora semiotique)은 내면심리를 산출하거나 부정하는 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³¹⁾ 크리스테바는 사회적 영역에서 ‘말하는 주체’의 의미화 실행에 의해 상징계가 기호계의 침입을 받는 언어를 ‘시적 언어’라고 부른다.³²⁾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출렁이는 김명순의 시적 언어 분석을 통해 ‘말하는 주체’의 심리적 갈등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아 고립, 자아 부정의 시

김명순 문학은 고백체의 특징을 드러낸다. 근대문학은 개체가 중심이 되는 문학이라는 점에서 전근대 문학과 구별된다. 고백체 문학은 근대성의 특징을 담지하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근대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다.³³⁾ 김명순은 자신의 사생활을 문학작품에 투사하여 작가의 분신이라고 규정지를 수 있는 작품을 많이 썼다. 따라서 김명순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1996, 110~115면.

29) 안나 프로이트, 앞의 책, 82면.

30) 홍문표, 앞의 책, 385~409면.

31) 김인환, 앞의 책, 93~113면.

32) 박재열, 앞의 논문, 98면.

33) 이태숙, 앞의 논문, 314면.

삶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김명순은 1920년대를 전후한 사회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을 억압했던 제도나 남성문학가들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표출했던 방법이 적극적인 문학활동이었다. 김명순은 시적 화자인 ‘말하는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몰아넣었던 당대 폭력적인 담론들에 맞서 끊임없는 창작으로 작가의 욕망을 펼쳐나간 것이다.

김명순의 작가적 의지는 외부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마지막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녀의 자전적 글쓰기는 미숙한 시의 기법에서 비롯됐다고보다는 전략적 사유에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명순은 시에 나타난 ‘말하는 주체’를 통해 실제 체험한 고백적 자기 인식이나 자아 고립, 자아 부정의 심리적 갈등양상을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드러낸다. 김명순은 시 쓰기를 통해 시대적 담론에 대항한 것이다. 이는 외적 세계에 대한 분노의 갈등양상을 ‘말하는 주체’의 목소리로 끊임없이 표출한 김명순의 전략적 사유로 보인다.

뵈는 듯 마는 듯한 설움 속에/ 잡힌 목숨이 아직 남아서/ 오늘도 괴로움을
 참았다/ 작은 작은 것의 생명과 같이/ 잡힌 몸이거든/ 이 설움 이 아픔은 무엇
 이나./ 금단의 여인과 사랑하시던/ 옛날의 왕자와 같이/ 유리관 속에서 춤추면
 살 줄 믿고...../ 이 아련한 서러움 속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면/ 재미나
 게 살 수 있다기에/ 미답지 않은 세상에 살아왔었다./ 지금 이 뵈는 듯 마는
 듯한 관 속에/ 생장生葬되는 이 답답함을 어찌하랴/ 미련한 나!/ 미련한 나!

「유리관 속에서」 전문³⁴⁾

이 시에서 ‘말하는 주체’의 갈등양상은 ‘관’과 ‘생장生葬’에 있다. ‘관’이나 ‘생장’은 갇히는 공간이다. 지금 시적 화자는 “뵈는 듯 마는 듯” 하거나 “잡히거”나 “금단이거”나 “미답지 않거”나 “아련한 서러움이거”나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한다. 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갈등양상의 내면 심리를 외부세계를 차단하는 견고한 벽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리관’은 바깥이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자유를 상실한 공간이다. 김명순을 꼼짝하지 못하게 가두는 이 ‘유리관’은 김명순이 극복하지 못한 운명이라

34) 맹문재, 앞의 책, 56면. 《조선일보, 1924년5월24일.》

고 볼 수 있다. 지금 화자의 심리적 갈등은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음과 같지 않은 답답하고 설운 심정에서 발현된다. 보이는 듯 마는 듯한 관. 그것도 유리관 속에 생으로 매장되는 ‘말하는 주체’는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안 보이는 것 같은 미답지 못한 세상을 향해 어찌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을 “미련한 나!”라고 자책하며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을 가시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면 “재미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희망의 의지를 실천했다. 하지만 지금은 “생장生葬되”는 “답답”한 운명 앞에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의지가 꺾여버렸음을 “미련한 나”의 좌절감으로 솔직하게 드러낸다. 이는 ‘말하는 주체’의 고백적 어조로 미답지 않은 세상을 고발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문화에 잡혀 사는 자신을 ‘미련한 나’로 자학하는 표현은 여성해방을 강조하는 역설이라는 논의³⁵⁾가 있다. 그러나 김명순은 독립상태에서 여성해방을 강조하기에는 힘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이는 자신의 고립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전위나 치환의 방어기제가 된다.

김명순의 내부에 있으면서 자신을 구속하는 대상은 시 속에서 자리바꿈을 하게 된다. 그 전략은 자신의 분노와 공격적 에너지를 유리관 내부에 가두었다는 것을 표명하여 정신안전지대를 마련하는 것이다.³⁶⁾ 결국 김명순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금단의 사랑을 품고 이를 버리지 못하는 미련한 자신을 꾸짖는다. 이는 스스로 유리관 속에 고립된 자신을 전위(displacement)또는 치환의 방어기제로 발현시킨다. 위협을 많이 주는 대상에서 위협을 덜 받는 대상으로 자리를 바꾸거나 방향을 전환시키는 심리기제가 된다. 화자의 운명적 요소와 현실의 억압적 기제가 중첩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눈을 감으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남빛 안개 속에 조약돌 길 위를/
한 치녀 거지가 무엇을 찾는 듯이/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다보고/ 새파랗게
질려서 보인다// 내 머리 돌리면/ 분명히 생각나는 일이 있다/ 삼 년 전 가을

35) 황재균, 「김명순 시의 근대성 연구」. 『선칭어문』 제28호,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00, 32면.

36) 박경혜, 「빼앗긴 집을 찾아 헤매는 영혼의 언어-김명순의 시」, 앞의 논문, 206면.

의 흐린 아침이었다/ 나는 학교에 가는 길 나들이에서/ 나를 향해 오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어디를 가시오!”하는/ 그 울 맺은, 음성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멈추는 저의 발걸음을/ 멈출 틈도 없이 쏟아와 같이/ 저의 앞을 말없이 걸어갔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겨우 삼 년 기른 파랑새를/ 그 길 너머로 울면서 놓아버렸었다/ 하나 이 명상의 때에/ 무슨 일로 옛 설움이 또 오는가,/ 새를 머물러 둘 내 가슴이 아니었다/ 매맞아 병든 병든 가슴속에/ 옛 설움아 다시야 돌아오라

「분신」 전문³⁷⁾

이 시는 ‘치너거지’라는 비속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자아의 내면을 드러낸다. 여기서 ‘치너거지’는 위기의식이 투영된 자기체험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이나 당대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주는 실존적 불안의 표현이다. 「분신」에서 ‘거지’의 이미지는 김명순의 존재와 불안한 위기의식이 투사된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 지금 치너거지가 처한 현실공간은 낮인지 밤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다. 그녀는 사납고 잔인한 현실문제에 부딪쳐 공포에 떨고 있다. 단절된 현실에서 ‘말하는 주체’는 “학교에 가”는 “나들이” 길의 유년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과거공간에서 어쩌면 분신일지 모를 그림자를 만나고 음성을 듣지만 모두 지나쳐버리는 설움을 당하게 된다.³⁸⁾

이 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시의 어휘는 ‘말하는 주체’의 삶에 대한 의욕을 찾아보기 힘들게 한다. 새파랗게 질리거나 흐리거나 그림자이거나 멈추거나 울거나 놓아버리거나 때 맞거나 병들거나 서럽다는 암울한 색채의 어휘들은 부정적 기표역할을 담당하면서 실질적 실천으로서의 의미작용공간과 만나게 한다. 따라서 어휘는 고립적인 상태에서 독자적인 존재이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위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자신의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시에서 시적 어휘는 역사적인 문화와 연결시키는 매개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³⁹⁾ 이 시에서 김명순의 분신⁴⁰⁾으로 나타나는 체험 속의

37) 맹문재, 앞의 책, 62~63면. 《조선일보, 1924년5월30일》

38) 김정자, 앞의 논문, 23면.

39) 김인환, 앞의 책, 59~60면.

‘치녀거지’는 “새파랗게 질”려 있고 “나를 향해오는 그림자”와 “올 맺은 음성”은 “쏟살과 같”이 사라져버렸다. ‘말하는 주체’는 “겨우 삼 년 기”른 파랑새를 “그 길 너머로 올”면서 “놓아버”려야 했다. 이때 ‘말하는 주체’는 겨우 삼 년 기른 파랑새를 울면서 날려 보내야하는 상당한 심리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주체’는 스스로 치녀거지가 되어 “매 맞”아 “병”든 가슴속에 “새를 머물”러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설운 가슴으로 올 수밖에 없다. 김명순은 자기 자신을 치녀거지로 인식하고 자신의 분신과 대화를 주고 받으며 진실을 토로해나가고 있다. 김명순은 비록 치녀거지의 모습이 투사된 보잘 것 없는 분신이지만 상황에 따라 ‘말하는 주체’의 목소리로 자아 부정을 뒤흔들며 표출하면서 완벽한 삶을 추구한다. 온몸을 채우는 갈망과 다시는 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갈등상황은 오히려 삶에 대한 구원의 갈구를 느끼게 해준다.

밤 깊으면 설움도 깊어서/ 외로움으로 우울로 분노로/ 변조해서 고만 혼자 분풀이한다/ 싹싹 번을 긁는 것은 철 없이도/ “나라야 서울아 쓰러져라/ 부모야 형제야 너희가 악마거늘”하고/ 싹싹 땅땅 찢고 두들기는 것은/ 피투성이 한 형제의 모양과 피 뿜는 내 가슴/ “이 설움 이 아픔 이 원망을 어찌하라”고/ 고만 지쳐서 잠들면/ 그 이튿날 아침까지 휴지부休止符 그러나/ 또 밤들면 다시 시작하기 쉬운 외로움의 변조라

「외로움의 변조」 전문41)

1/ 천당 길 가려느냐/ 지옥 길 가려느냐/ 숨어질 동굴 없이/ 저주의 신세 되어/ 두 마음 품에 품고/ 천지에 아득거린다// 2/ 밤마다 꿈마다/ 물결에 젖어 울며/ 두 마음 외로운 일/ 바다에게 물으면/ 외로운 한 마음이/ 깨져서 둘이라고

「이심二心」 전문42)

40) 김영옥, 앞의 논문 170면.<실제 김명순의 삶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의 삶에 대해 존재하는 여러 자료들(전술부분 참고)을 보면 작품 속에 김명순 삶의 압축적인 단면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41) 맹문재, 앞의 책, 114면. 《동아일보, 1925년7월20일》

42) 맹문재, 위의 책, 136면. 《동아일보, 1927년11월6일》

두 시 「외로움의 변조」와 「이심二心」에서는 시에 사용된 어휘를 통해 ‘말하는 주체’의 심경을 짐작할 수 있다. 김명순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설움, 원망, 아픔, 저주, 탄식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희생양의 심경을 드러내는 단적인 표현들이다. 작가가 선택한 이 시적 어휘들은 심리적 지시대상을 직접 가리킨다. 이는 외시적 어휘로서 직접적인 현실포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⁴³⁾ ‘말하는 주체’의 시적 언어를 통해 코라 세미오틱(Khora semiotique)은 내면 심리를 산출하거나 부정하는 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유동적으로 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⁴⁾

「외로움의 변조」에서는 나라와 부모형제가 악마로 변하는 두려운 상황이다. 그들에게서 받는 피투성이 모습의 상처는 “외로움으로 우울로 분노”로 원망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외로움의 변조는 어디에서도 원망할 수 없고 잠에서 깨는 시간이면 휴지부에서 고개를 쳐들고 다시 괴롭히기를 반복하는 갈등양상이다. 시적 화자가 내면의 갈등양상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주변의 찌푸린 상황으로 인해 야기되는 설움, 아픔, 원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이다.

「이심二心」에서 ‘말하는 주체’는 천당 길과 지옥 길의 갈림길에서 갈등한다. 그런데 문제는 “숨어질 동굴”도 없이 “저주의 신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맘에 품은 “두 마음”은 “외로운 한 마음”이 “깨져”서 “둘”이라는 대답을 바다에게서 듣게 된다. “밤마다 꿈마다 물결에 젖”어 우는 화자는 “바다에게 묻”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 스스로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질문을 던진다. 두 마음을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던져져 있다. 하지만 바다에게 묻고 답을 듣는 것처럼 표현하여 내면적 갈등양상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두 감정이 공존하는 상반된 양가감정의 심리상태가 자신을 방어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두 시 「외로움의 변조」와 「이심二心」에서 드러나는 공간은 ‘말하는 주체’를 부정하거나 ‘말하는 주체’를 산출하는 양가적 공간이다.⁴⁵⁾ 양가감정이

43) 김인환, 앞의 책, 61면.

44) 김인환, 위의 책, 93~113면.

공존하는 두 시의 공간은 ‘말하는 주체’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유동적이며 돌발적으로 분출하기도 하는 코라 세미오틱(Khora semiotique)의 장으로 볼 수 있다.

2. 식민화된 정체성 - 자기 탈피의 시

식민화된 정체성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타인의 힘에 의지하는 고백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⁴⁶⁾ 김명순은 식민화된 정체성마저도 글쓰기의 전략적 사유로 활용하고,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 문학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김명순의 의도적 창작행위는 타자화를 불러온 당대의 모순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체로 작동하여 당대의 주체와 대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⁴⁷⁾ 그러나 그녀의 노력에 비해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김명순은 최초의 여성문학인으로 당대 문단에서 인정받고자 했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녀는 당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체적 위치로부터 밀려나가 대상화된다.⁴⁸⁾ 그러나 김명순은 출생의 비천한 운명과 문학현실에 대한 분노를 열정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당당하게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자기 탈피로 승화시키는 사유를 보여준다.

세상이여 내가 당신을 떠날 때/ 개천가에 누웠거나 들에 누웠거나/ 죽은 시체에게라도 더 확대하시오/ 그래도 부족하거든/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확대하시오/ 그러면 나는 세상에 다신 안 오리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별합시다.

「유언」 전문⁴⁹⁾

45) 김인환, 위의 책, 93~113면.

46) 식민화된 정체성은 피식민지인이나 여성의 경우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성격이다. 자신에게 규정되어 있는 타자의 정체성을 스스로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경우, 자조적 자기 탈피가 된다.(이태숙, 앞의 논문, 320면.)

47) 노엘 맥아피, 이부순 역,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엘피, 2007, 10~11면.

48) 최윤정, 앞의 논문, 490면.

나는 들었다/ 굶은 이에게는 밥 먹으란 말밖에 안 들리고/ 음부淫婦에게는
당녀의 소리밖에 안 들리고/ 난봉의 입에서는 더러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을
「무제」 전문⁵⁰⁾

격렬한 분노는 외적 억압에 대한 내적 저항에서 비롯되면서 현실의 억압과 대결할 수 있는 강한 의지로 변화될 수 있다.⁵¹⁾ 위의 두 시에서는 결연한 비극적 의지를 보여준다. 「유언」에서 ‘말하는 주체’의 유언은 비통하다. 시적 화자가 “개천가에 누웠”거나 “뜰에 누웠”다는 것은 떠돌이 삶이나 객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극한의 비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 “죽은 시체”에게 “학대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게다가 “그래도 부족하”거든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로 확장되어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 당하기를 항변한다. 시적 화자인 ‘나’는 “세상에 다”신 오지 않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작별하”겠다는 의지로 자기 탈피의 갈등양상을 표출한다. ‘말하는 주체’는 조선에서 외면되고 매도되었던 외로운 투쟁을 항변하는 것이다. 이미 버림받은 자신은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아의 울분은 “다신 안 오리”라는 결연에 찬 작별을 고하는 것이다.

4행의 짧은 시 「무제」에서도 ‘말하는 주체’는 굶은 이와 음부淫婦와 난봉을 통해 듣고 싶지 않은 말들만 “들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나”는 ‘굶은 이’와 ‘밥’과 ‘음부’와 ‘당녀’와 ‘난봉’과 ‘더러운 소리’를 연계시켜 그들에게서 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말들에 자신의 귀를 자학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태도는 ‘시’라는 텍스트 안에서 ‘과정 중에 있는 주체’나 ‘경계선에 있는 주체’가 추방해버린 대상들과 ‘말하는 주체’인 ‘나’ 사이의 틈을 만든다. 김명순은 부정성과 죽음충동이 살고 있는 심연에서 질시와 질타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해의 손길 하나 내미는 사람 없이 가난과 모멸 속에서 외롭게 투쟁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학대해달라고 외친

49) 맹문재, 앞의 책, 61면. 《조선일보, 1924년5월29일.》

50) 맹문재, 위의 책, 112면. 《조선문단, 1925년7월6일.》

51) 박경혜, 「어조의 분열: 윤희와 탈주의 욕망 사이」, 앞의 논문, 98면.

다. 이 함성은 억울한 심정과 원망의 분출이다. 사회적 모순에서 비롯된 시적 화자의 외침은 강력한 극복의지다. 이 시에서 ‘말하는 주체’는 이해받거나 대우받고 싶은 욕망이나 충동을 억압하고 대신 “학대하”라거나 “작별하”겠다는 반대쪽의 감정을 강조하여 불안한 갈등양상을 감소시키는 방어기제다.

부정성의 자리에서 이성중심의 사물이자 담보자인 통사론은 코라 세미오틱의 부정성과 죽음 충동으로 기호화된다. 크리스테바는 자기 정체성을 연기하는 것을 여성적 글쓰기의 한 특성으로 본다. 이 시에서 ‘말하는 주체’의 의도적인 자기 정체성 연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정하듯 나르시스적 대상이 되는 ‘자아’이기를 포기한다. 전 오이디푸스 단계로 돌아가고 싶은 부정성을 일으키며 대신 “세상에 오”지 않고 “작별하”겠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크리스테바는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추방해버려야 하는 것을 압책션(Abjection)이라고 부른다.⁵²⁾ 압책션(Abjection)은 혐오감을 주는 대상을 분리시켜서 던져버리는 행위⁵³⁾인데, 이 시에서 ‘말하는 주체’는 자신을 학대하는 세상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식민화 되어버린다. ‘말하는 주체’는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소리에 대한 심리적 갈등양상을 쓰디쓴 상실감의 ‘작별’로 드러낸다.

IV. 내면심리 변화의 문학적 형상화

시에서 ‘말하는 주체’는 시인과 시 사이의 틈새를 메운다. 시의 목소리는 온전히 시인의 것이 아니다. 시의 목소리는 시라는 형식 속에서 발화된 삶의 뉘이며 삶이라는 형식 속에서 발화된 언어의 울림에 할당된 자리이다. 시에서 ‘말하는 주체’는 담론 또는 언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의 한 자리

52) Kristeva, trans. by Roudiez, *Power of Horro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80, 2~4면.(김승희, 앞의 논문, 151면, 재인용)

53) 김승희, 앞의 논문, 151~154면

가 된다.⁵⁴⁾ 가장 주관적인 언어를 실현하는 힘이 ‘말하는 주체’인데, 주관적인 언어라는 것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현실에서 미지의 무엇을 지금 여기에 걸어 들어오게 하는 말이다.⁵⁵⁾ 시에서 ‘말하는 주체’는 시인이 속한 과거와 현재의 응축된 맥락들이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시인 자신은 사회, 문화, 정치, 역사, 경제 등과 같은 다기한 흐름들이 교차하는 결절점이 된다.⁵⁶⁾

김명순 시에 나타나는 ‘말하는 주체’의 심리적 갈등양상을 살펴보면 시의 이미지화를 통해 문학적 형상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명순의 작가적 의지는 외부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마지막 시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그녀는 자아 고립이나 자아 부정 또는 자기 탈피의 갈등양상을 거쳐 자아를 모색하거나 자아를 초월한 창작활동을 이어간 것이다. 김명순은 외부의 시선과 부정적 담론에 폭력적으로 짓눌렸지만 자신을 부정하던 태도까지 당당하게 드러냄으로써 자아 모색과 자아 초월의 태도로 나아간다.

1. 자아 모색, 자아 초월의 시

김명순은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에게 ‘말하는 주체’가 된다. 그녀는 내면 심리의 갈등양상을 풀어나가기 위한 모색과 초월의 창작세계를 확장해 문학적 형상화를 이루어나갔다. 김명순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두렵게 만들던 것과의 경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글쓰기를 이어 갔다. 초기시의 ‘말하는 주체’는 자신을 억압하던 세계와 자신을 분리시켜 자아 고립이나 자아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김명순은 바깥세계의 괴물 같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며 그녀 스스로 당당한 이방인이 되었다. 그런 김명순에게 어머니의 몸은 매우 낮은 공간이 낮은 공간으로 변하는 카니발적인 축제의 공간이며 아주 잘

54) 김종훈, 「시적 주체에 대하여」, 『계간 시작』, 2014, 332면.

55) 조재룡, 「말하는 주체, 시적 주체, 주체화」, 『계간 시작』, 2013, 285~304면.

56) 윤지영, 「시 연구를 위한 시적 주체(들)의 개념 고찰」, 『국제어문』 39집, 국제어문학회, 2007, 159~160면.

알아서 오히려 금지의 공간이 되어버린 친숙한 영토가 된다. 김명순은 환상과 쾌락의 공간이었지만 상징계로 편입하면서 이제는 추방된 출생의 땅에서 어머니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하며⁵⁷⁾ 자아를 초월하는 창작의 끈을 놓지 않았다.

1/ 심야이다/ 사위四圍 고요하다/ 버릇이 되어, 산같이 그득 쌓인/ 책장을 치어다본다/ 하나씩 사들이던 고난을 회상한다// 2/ 그것이 모두/ -무지無知의 원圓을 전개시키는 수밖에 없다/ 일러온 것을/ 기氣를 가다듬고 머리를 흔들다가도/ 어머니! 고요히 부르짖고/ 천장天井을 우리러 한숨짓는다// 3/ 신성神聖을 말씀하시는 그 이마/ 검은 안경 밑에 청록색의 안광眼光/ 나의 무릎을 있게 하시려고/ 가지가지로 표정하시던/ 위엄과 사랑과 진실됨/ 당신에게로 내가 갑니다. 또한/ 오시도록 기다리웁니다// 4/ 일장一場 거룩한 장면이 지나면/ 그의 생시와 같이 하얗게 입고/ 기다란 속눈썹 아래 둥그런 눈동자/ 아름다운 코와 입모양이 한층 더 정화淨化되어/ -애처로운 내 아기 그렇게 괴로워서/ 꽃의 정情 같이 천장 위로 나타난다// 아름다운 꽃밭에 즐거운 시냇가에/ 오빠야 누나야 동무야 부르짖던 일/ 다 옛날이었고 그나마/ 지금은 안 계신 내 어머니 / 나와 피와 살을 나누신 그 이가/ 내 생활과 내 사랑을 아시는 듯/ 유명계幽明界를 통하여 오는 설움에/ 밤마다 때마다/ 눈물을 짓는다

「심야深夜에」 전문⁵⁸⁾

지금 ‘말하는 주체’는 심야에 그동안의 “고난을 회상하”며 상념에 젖는다. 불러도 오지 않을 어머니를 “고요히 부르짖”고 불러도 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천장을 우리러 한숨짓”는다. ‘말하는 주체’는 어머니에게로 가기도 하고 어머니가 오시도록 기다리기도 한다. 지금 ‘말하는 주체’는 친숙한 공간이 되는 어머니를 매개로 내면심리의 갈등양상을 해소하고 싶은 갈망을 드러낸다. ‘말하는 주체’는 아름다운 꽃밭과 즐거운 시냇가에서 오빠와 누나와 동무를 부르짖으며 지금은 안 계신 어머니를 통해 밤마다 흘리는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기를 희망하며 자신이 모색하는 앞날에 대해 위로받고자 한다.

57) 임옥희, 「문학과 정신분석학의 ‘기괴한’ 관계에 대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03, 14~15면.

58) 맹문재, 앞의 책, 194~196면. 《동아일보, 1938년4월23일》.

이 시에서는 ‘고향’과 ‘어머니’를 동일시한다. ‘말하는 주체’는 그리움의 대상인 ‘어머니’를 통해 힘든 현실에서 자아를 모색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김명순이 찾아든 고향의 이미지는 대지의 이미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깊은 무의식의 심층에서 인식처로 자리한다. 고향을 찾는다는 것은 성인 심리에 내재하는 유아적 무의식을 통해 근원으로 돌아감을 의미하고 모태 회귀본능에도 연관된다.⁵⁹⁾ 여기서 어리광을 부리거나 유년의 추억이나 고향의 향수에 젖는 경우에서 ‘말하는 주체’의 퇴행(regression)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⁶⁰⁾ 이는 시 속에서 ‘말하는 주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좀 더 안전하고 즐거웠던 초기 발달 단계로 후퇴하거나 유아기적 표현을 함으로써 불안을 완화시키는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

길, 길 주욱 벌은 길/ 음향과 색채의 양안兩岸을 건너/ 주욱 벌은 길// 길
 길 감도는 길/ 산 넘어 들 지나/ 굽이굽이 감도는 길// 길 길 작은 길/ 벽과
 벽 사이에/ 담과 담 사이에// 작은 길 작은 길// 길 길 유현경幽玄境의 길 머
 리 위의 길// 길 길 주욱 벌은 길/ 음향과 색채의 양안을 전하여/ 주욱 벌은
 길 주욱 벌은 길 (서울에서)

「길」 전문61)

지금 길은 “주욱 벌”어 있다. 그것도 “음향과 색채의 양안兩岸을 건”너서 벌어 있다. 그 길은 깊고 그윽하고 오묘한 정취를 풍기는 ‘유현경幽玄境’의 “주욱 벌”은 길이다. 이 길은 시인이 평생을 두고 추구하려던 완성된 미래로 향한다. 지금 ‘말하는 주체’ 앞에는 “주욱 벌”은 길이거나 “굽이굽이 감”도는 길이거나 벽과 벽 또는 담과 담 사이의 제한된 “작은 길이”거나 유현경幽玄境의 “머리 위의 길”이라는 대상으로 놓여있다. ‘말하는 주체’ 앞에 펼쳐진 이 길은 세속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이다. 그 진리의 길을 가려면 온갖 고통의 장애와 도사린 함정을 피해가야 한다.

59) 황재균, 앞의 논문, 35면.

60) 안나 프로이트, 앞의 책, 98면.

61) 맹문재, 앞의 책, 71~71면.

이 “길”에는 장애와 역경을 헤치고 자아를 초월하려는 ‘말하는 주체’의 힘찬 의지와 패기가 깃들어 있다. “주옥 번”은 길은 자신이 걷고 싶은 생의 길과 동일시되어 있다. ‘말하는 주체’는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선택해야만 갈 수 있는 선구적 유헌경幽玄境의 길을 좋아하는 대상으로 모방하려는 것이다. 이때 동일시하는 대상은 ‘곧은 길’이 된다. 시적 화자의 심리적 갈등양상은 ‘그 길’과 닮아가고 싶은 동조심리 속에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고요한 옛날의 노래여/ 꿈 가운데 걸어오는 발자취같이/ 들렀다 사라지는...../ 어머니의 노래여, 사랑의 탄식이여// “타방 타방네야 너 어디를 울며 가니/ 내 어머니 몸진 곳에 젖 먹으로 울며 간다”/ 이는 내 어머니의 가르치신 노래이나/ 물결 이는 말 못 미쳐 이것만 아노라// 옛날의 날 사랑하시던 내 어머니를/ 큰 사랑을 세상에서 잃은 설움이/ 멜로디-만 황혼을 숨길 때/ 장밋빛으로 열린 들길에는 바람도 애타라// 오래인 노래여 내게 옛말씀을 들리사/ 중략/ 오오 그 물이 내 거울이 되리다// 무언가無言歌여 다만 음향音響이여 나를 이끌어/ 그대의 말씀 사라진 곳에/ 내 어머니 몸진 곳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라/ 옛날의 노래여, 사라지는 울림이여.

「옛날의 노래」 부분⁶²⁾

거울 앞에 밤마다 밤마다/ 좌우편에 촛불 밝혀서/ 한없는 무료를 잊고 지고/ 달빛같이 파란 분 바르고서는/ 어머니의 귀한 품을 꿈꾸려// 귀한 처녀 귀한 처녀 설운 신세 되어/ 밤마다 밤마다 거울의 앞에.

「기도」 전문⁶³⁾

위 두시 「옛날의 노래」와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던 어머니의 노래나 귀한 품을 떠올리며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위안 받고자 하는 퇴행의 방어기제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먼저 「옛날의 노래」를 살펴보면, “옛날의 날 사랑하시던 내 어머니를 통해 그늘지고 애수어린 심경을 풀어낸다. 이 시에서는 “타방 타방네야 너 어디를 울며 가”냐고 사랑의 탄식을 부르던 어머니의 노래를 상기하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머니의 “몸진 곳”에 대

62) 맹문재, 위의 책, 82~83면.

63) 맹문재, 위의 책, 92~93면.

한 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황폐함을 반증하는 의도적 전략으로, ‘말하는 주체’ 의식의 근거에 유토피아적 향수 모티프가 자리하고 있다.⁶⁴⁾ 김명순 문학의 원체험을 이루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시적 상상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밤마다 밤마다” 초벌을 밝힌 거울 앞에서 다시는 안길 수 없는 어머니의 귀한 품에 대한 귀한 처녀의 설운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김명순의 고독한 자화상이 부각되는 「기도」는 현재를 부정하기 위해 꿈이나 과거를 지향하는 태도를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위 두 시에서는 ‘퇴행(regression)’의 방어기제를 통해 자아를 초월하는 ‘말하는 주체’의 갈등양상을 살필 수 있다. 위 두 시에서 충동의 배열이 되는 무의식적인 기호계는 자아본능적 퇴행에서 비롯된다. 크리스테바는 기호계를 어머니의 육체공간이 지배하는 단계로 ‘여성적’이라고 묘사한다. 이 코라 세미오틱의 공간 속으로 끝없는 충동의 흐름이 모여드는 것이다.⁶⁵⁾ 전술한 두 시 「옛날의 노래」와 「기도」에서 드러나는 시적 어휘의 공간들은 옛날의 노래가 사라지는 울림이 될 뿐인 갈등의 장소가 된다. 하지만 그 갈등양상을 통해 주체가 생겨나고 자아를 구조화하거나 초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자아 구원, 자아 극복의지의 시

김명순의 시에는 환한 색조로 다듬어진 사랑의 언어들 보이지 않는다. ‘말하는 주체’는 영원한 사랑의 결합을 끊임없이 갈망한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가는 이승의 사랑은 어렵고 고통스러울 뿐이다. 김명순은 만년청 같은 사랑을 누리고 싶은 열정이 강렬하면 할수록 난관 투성이가 된 사랑 앞에 좌절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불태운다. 그녀의 자기 구원 태도나 자기 극복 의지는 강렬한 기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김명순이 느끼는 개인의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된 생각이나 행동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드러난다.

64) 박경혜, 「어조의 분열:유페와 탈주의 욕망사이-김명순론」, 앞의 논문, 86면.

65) 박재열, 앞의 책, 91~92면.

귀여운 내 수리/ 사람들의 머리를 지나/ 산을 기고 바다를 헤어/ 골속에 숨
은 내 맘에 오라.// 맑아가는 내 눈물과/ 식어가는 네 한숨/ 또 구르는 나뭇잎
과/ 설운 춤추는 가을나비/ 그대가 세상에 없었던들/ 자연의 노래 무엇이 새로
우라.// 귀여운 내 수리 내 수리/ 힘써서 아프다는 말을 말고/ 곱게 참아 겿세
마네를 넘으면/ 극락의 문은 자유로 열리리라.// 귀여운 내수리 내수리/ 흘린
땀과 피를 다 씻고/ 하늘 웃고 땅 녹는 곳에/ 골엔 노래 흘리고 들엔 꽃 피자/
그대가 세상에 없었던들/ 무엇으로 승리를 바라랴.// 그때까지 조선의 민중/ 너
희는 피땀을 흘리면서/ 같이 살길을 준비하고/ 너희의 귀한 벼들을 맞으라

「귀여운 내 수리」 전문⁶⁶⁾

이 시에서는 힘차게 비상하는 ‘수리’라는 대상을 통해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
나려는 의지를 승화시키고 있다. 수리는 ‘말하는 주체’에게 ‘귀여운 내 수
리’와 동일시되고 있다. ‘수리’는 매과에 속하는 맹금류로 부리와 발톱이 날
카롭고 사냥의 본능이 강하다. 그런데 ‘말하는 주체’는 그 맹금류의 수리에게
동료의식을 느낀다. 이는 민족이나 자신이 추락하지 않고 창공으로 날아오를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⁶⁷⁾ 지금 ‘말하는 주체’에게 자연의 노래가 새롭게
들리는 것은 그대가 세상에 있어서인데, 그 “귀여운 내 수리 내 수리”가 “곱
게 참”아 “겿세마네를 넘”으면 극락의 문은 “자유로 열리”리라고 예견한다.
아프거나 힘들어서 한숨이 나와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극락
이 열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찬 어조로 예견하고 있다.

이 모든 자신감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대’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서 ‘그대’
는 주체성과 자부심을 잃지 않는 ‘말하는 주체’이자 ‘시적 화자’이며 작가인
‘시인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다.⁶⁸⁾ ‘수리’라는 대상의 감각적 이미지화는 시인
의 의지를 승화시키는 문학적 형상화에 일조한다. ‘말하는 주체’는 “겿세마네
를 넘”으면 열리는 극락의 문이 광복이나 구원의 세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아파도 참고 유토피아로 나아가야한다고 부르짖는다. “하늘 웃”고 “땅 녹”는
곳과, “노래 흘”리는 골과 “꽃 피”는 들을 만나기 위해 피땀 흘려 살길을 준

66) 맹문재, 앞의 책, 90~91면.

67) 맹문재, 앞의 논문, 458면.

68) 프로이트, 임흥빈, 홍혜경 역, 『새로운 정신분석강의』, 열린책들, 1996, 87면.

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리의 평화로운 세계는 강한 의지로 고통스러운 현신을 극복해야만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이상향이다.

벗들은 산으로 가네/ 춘광春光을 따라 녹음을 따라 춘풍명월을 따라/ 이 세상을 잊어버리려고 수도원으로 가네// 중략/ 종을 땡땡 울리며 거룩한 마음으로 묵도默禱를 하러 간다지/ 이로써 한 세상을 마치려고// 그러나 벗이여/ 오게 지옥의 예찬자 사의 동지 썩은 송장들이 뭉켜있는 그 곳을 가지 말고/ 생의 예찬자 생의 개척자가 있는 우리에게로 오게/ 오게 너희들의 부모처자 동생들을 다 데리고 오게/ 삶의 나팔을 불며 굳세게 행진하는 우리들의 일터로/ 좋은 세상을 개척하려는 우리들의 싸움터로

「수도원修道院으로 가는 벗에게」 부분⁶⁹⁾

지금 벗들은 산에 있는 수도원으로 가고 있다. 춘광이나 녹음이나 춘풍명월을 따라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서 수도원으로 간다. “이 세상을 잊어버리려고 “세상의 잡념을 다 던져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묵도를 하”러 가는 것이다. ‘말하는 주체’는 “이로써 한 세상을 마”칠 것 같으며 3연부터는 벗에게 상대높임법 ‘하계체’로 시종일관 일방적 명령을 하고 있다. ‘말하는 주체’는 벗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옥과 죽음을 예찬하는 송장들이 득시글거리는 산속의 “수도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삶의 나팔을 불”며 “좋은 세상을 개척하”려는 “우리들의 싸움터”로 오라고 말한다.

김명순은 다중적 상황이 내포된 존재다.⁷⁰⁾ 여기서 ‘벗’은 ‘시인’ 자신이다. ‘말하는 주체’는 ‘벗’을 힘든 현실에서 도피시키고 싶지만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심리상태를 공존하는 양가감정으로 풀어낸다. 이 시에서는 힘든 상황을 외면하고 산속으로 숨고 싶은 자아를 구원하기 위해 힘들더라도 부딪쳐서 좋은 세상을 개척하라고 자신에게 주문을 걸고 있다. ‘말하는 주체’는 지옥의 예찬자와 생의 예찬자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갈등양상을 보인다. ‘말하는 주체’는 부모처자와 동생까지 다 데리고 생의 개척자가 있는 일터로 가야 한다고 외친다. 비록 그 일터가 싸움터가 될지라도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맞서

69) 맹문재, 앞의 책, 164면. 《신동아, 1933년7월.》

70) 최윤정, 앞의 논문, 507면.

야 식민화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아 구원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V. 결론

본고는 선행연구를 통해 김명순 시의 ‘말하는 주체’가 ‘시적 화자’이며 ‘시인 자신’과 동일시되는 자전적 글쓰기라는 다수의 논의를 고찰하였다. 본고는 김명순 시에 나타난 ‘말하는 주체’의 심리적 갈등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방어기제와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코라 세미오틱(Khora semiotique) 공간의 ‘말하는 주체’와 관련한 시적 언어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김명순 자전적 글쓰기에서 특정가면을 쓴 시인이 발화를 수행하는 ‘말하는 주체’의 심리적 갈등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말하는 주체’는 시적 발화를 하는 역할의 화자 목소리를 거쳐 시인 자신의 세계관을 표명한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다.

김명순은 1917년 『청춘』 현상문예공모에 당선된 최초의 여성시인이며 1925년 최초의 시집 『생명의 과실』을 간행하였다. 신여성 김명순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여성으로 타자화되고, 시대적 압박과 폭력에 시달렸다. 그러나 김명순을 옹아맨 굴레는 그녀를 문학창작의 산실로 밀어 넣은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1세대 신여성작가였던 김명순은 자신을 구속하던 당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큰 동력이 창작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열정적인 글쓰기 활동을 펼쳐나갔다. 김명순은 이상적 세계로의 욕망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실제체험의 갈등양상을 지속적인 글쓰기로 표출함으로써 당당한 여성주체가 되고자 했는데 특히 중기시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는 오히려 당대 남성지식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계기도 됐지만 김명순은 굳건한 자아 극복의지를 굽히지 않고 창작활동을 이어나갔다.

김명순은 ‘서녀출신’⁷¹⁾, ‘데이트 강간사건’⁷²⁾처럼 치부가 될 수도 있는 운명적 현실을 시속에 녹여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는

주체'를 통해 자아 고립이나 자아 부정의 식민화된 정체성에서 비롯된 갈등양상을 항변의 목소리로 드러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이는 자기방어중심의 전략적 사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 의도적인 모색은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자아 구원의 글쓰기를 심화시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명순은 솔직한 체험의 자전적 시를 통해 자아 구원의식에서 민족해방 의식으로까지 자신의 시세계를 확장시켜나간 것이다.

글쓰기가 주체의 내면심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때, 김명순 시에 나타난 '말하는 주체'는 자아 구원의 글쓰기를 끊임없이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녀가 역사적, 시대적 담론의 갈등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 방어기제의 의도적 전략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말하는 주체'에서 의미화 되는 실행언어를 코라 세미오틱(Khora semiotique)의 '시적 언어'라고 볼 때, 김명순의 시적 언어는 '말하는 주체'를 통해 역사적 시대적 담론의 뒷에 빠진 자아 부정이나 자아 고립의 정체성에서 자아를 극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꺾지 않았음을 짚어보게 한다. 본고는 김명순의 자전적 글쓰기에 나타난 '말하는 주체'의 심리적 갈등양상을 고찰하여 실존적 삶을 살고자한 김명순의 시적 세계관을 조명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71) 「외로움의 변조」(1925년7월20일), 「향수」(1925년12월19일.)

72) 「무제」(1925년7월17일.)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맹문재, 『김명순 전집-시, 희곡』, 현대문학, 2009.

2. 단행본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

김인환,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문학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홍문표, 『현대문학비평이론-비평의 이론과 실제』, 창조문학사, 2003.

3. 번역서

노엘 맥아피, 이부순 역,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앨피, 2007.

메를로 폰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안나 프로이트, 김건종 역, 『자아와 방어기제』, 열린책들, 2015.

지그문트 프로이트, 『새로운 정신분석강의』, 임흥빈, 홍혜경 역, 열린책들, 1996.

4. 논문 및 평론

김경애, 「작가 김명순의 삶과 기독교 신앙」, 『여성과 역사』 제17집, 한국여성사학회, 2012.

김기진,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 《신여성》, 1924.

김동인, 『김연실전』, 문장, 1939.

김미영, 「1920년대 신여성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나혜석, 김일엽, 김명순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김승희, 「상징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여성문학연구』 2호, 여성문학연구학회, 1999.

김영옥, 「1920년대 여성시인 연구-김일엽, 김명순, 나혜석의 시를 중심으로

- 로」, 『우리문학연구』 20, 우리문학회, 2006.
- 김정자, 「김명순 문학의 여성학적 접근」, 『여성학연구』 제2권1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1990.
- 김중훈, 「시적 주체에 대하여」, 『계간 시작』, 2014.
- 남은혜, 「김명순 문학행위에 대한 연구-텍스트 확정과 대항담론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 3,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 남민우, 「여성시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1920년대 김명순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교육학』 제1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 문미령, 『근대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의 양상 및 의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맹문재, 「김명순 시의 주제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53집, 한국언어문학회, 2004.
- 박경혜, 「빼앗긴 집을 찾아 헤매는 영혼의 언어-김명순의 시」, 『문학과 의식』 26, 1994.
- _____, 「어조의 분열 : 윤희와 탈주의 욕망 사이-김명순론」, 『여성문학연구』 2호, 한국여성문학회, 1999.
- 박주영,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모성적 육체」, 『비평과 이론』, 한국비평이론학회, 2004.
- 방정민, 「김명순 시의 신여성상 연구-엘렌 케이 사상의 수용적 측면과 능가한 측면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2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 박재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시적 언어와 그 실제」, 『국어문학』 56집, 국어문학학회, 2014.
- 서정자, 「축출, 배제의 고리와 대항서사-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본 김명순의 문학」, 『세계한국어문학』 4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 송명희, 「신여성의 사랑과 자유이혼-김명순의 나는 사랑한다」, 『국어문학』 56, 국어문학학회, 2014.

- 신지연, 「1920년대 여성담론과 김명순의 글쓰기」, 『어문논집』 48, 어문학회, 2003.
- 신혜수, 「김명순의 하우스프트만 문화번역 연구-『돌아다볼 때』와 『외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69, 국제어문학회, 2016.
- 안혜련, 「1920년대 <여성적 글쓰기>의 모색」, 『한국언어문학』 제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 염상섭, 「추도」, 『신천지』, 1954.
- 윤지영, 「시 연구를 위한 시적 주체(들)의 개념 고찰」, 『국제어문』 39집, 국제어문학회, 2007.
- 이덕화, 「신여성 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김명순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호, 여성문학연구학회, 2000.
- 이민영, 「김명순 희곡의 상징주의적 경향 연구」, 『어문학』 103, 어문학회, 2009.
- 이태숙, 「고백체 문학과 여성주체-김명순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12.
- 이희경, 「여성문학의 흐름에서 본 1920년대 여성 시」, 『한국언어문학』 제4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2.
- 임옥희, 「문학과 정신분석학의 ‘기괴한’ 관계에 대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03.
- 전영택, 「김탄실과 그 아들」, 『현대문학』 4호 1955.
- , 「내가 아는 김명순」, 『현대문학』 1963.
- 조재룡, 「말하는 주체, 시적 주체, 주체화」, 『계간 시작』, 2013.
- 최윤정, 「김명순 문학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 최혜실, 「신여성의 고백과 근대성」,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회, 1999.
- 황재균, 「김명순 시의 근대성 연구」. 『선청어문』 제28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국어교육과, 2000.

【Abstracts】

The Study on the Aspects of Conflicts of the 'Speaking Agent' in the Poetry of Kim, Myeong-Soon

Bae Ok-ju

We have seen that the 'speaking subject' in Kim's works is considered as a 'poetic narrator' and the poet herself in many discourses about Kim's poetry. The descriptor in the work is a narrator and the descriptor outside of the work is a poet; these two share roles to create poetic statements, which is the process of a poet performing articulation in the persona of a narrator. Therefore, the 'speaking subject' shows the poet's world-view through the narrator who speaks in the poem. This paper aims to focus on the psychological conflict of the 'speaking subject' shown in Kim's autobiographical works.

Kim is one of the first female poets who actively recognized narcissism and free will as a modern woman and a pioneer of modern literature. Historically, Kim was under harsh circumstances, which was a positive momentum for her to dedicate herself to writing. Kim seems to have devoted herself actively to literature in order to bail out from the tyranny of modern male intellectuals and from the victim mentality caused by her origin. The conflict aspects of the 'speaking agent' appears as a monologue in anguish directed internally in early periods, but they become aggressive and show anger in the voice of the 'speaking agent' to the external world after the middle periods. This is not because of her amateurishness but because of her strategy. It would not have been as

easy for her to show the painful reality like her origin or date rape as it is in her poetry. Instead, she chooses to show the common aspects of the experiences repeatedly to remind the readers of her situation so that her works can constantly demure the malicious views and discourses. It seems that Kim tried to overcome the situation by expressing her will of creation conceived from by her fate.

After the middle periods, her poetry shows the conflicts of her identity as a citizen of Japanese colony, which appears as self-isolation and self-negation.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defense mechanism, expressing her experiences honestly in order to be confident. She went one step further and showed pity and regret for her mother, whom she denied as her origin, to return to her maternal instinct as a way to self-salvation. This indomitable will of the 'speaking agent' functions as a motive to survive the difficulties of her time.

Key words : Kim, Myeong-Soon, autobiographic writing, speaking agent, aspects of psychological conflicts, Chora-semiotic, self-negation, self-identity as a citizen of colony, self-salvation

이 논문은 2017년 1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3월 1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3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